

일주문

**용주사 단기 동안거 템플스테이**  
수원 용주사 주지 정호 스님은 2011년 1월 3-6일 용주사 효행문화원에서 단기 동안거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031)235-6886

**정현 스님 '지장심륜경' 강의**  
철원 심원사 주지 정현 스님은 2011년 1월 6일부터 매주 목요일 btm부상사에서 <지장심륜경>을 강의한다. (010) 8879-8400

**영주장복,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모집**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도윤 스님은 12월 22일까지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054)633-6415

**대구 광명사, 백팔부처님 봉안**  
대구 광명사 주지 정연 스님은 12월 17일 극락보전에서 중장불사 및 백팔부처님 점안 법회를 봉행했다. (053) 956-6213

**국제포교사회 15기 환영회**  
박상필 조계종 국제포교사회 회장은 2011년 1월 8일 서울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3층 보현실에서 국제포교사회 15기 환영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봉행한다.

**조영훈 육화포럼 3대 회장**  
조영훈 광주 중심사 사무장은 12월 14일 광주·전남지역 불교활동가모임인 육화포럼 제3대 회장에 취임했다.

**고려불화대전 뒷이야기**  
최광식 국립중앙박물관장은 12월 18일 박물관 내 교육관 강의실에서 '고려불화대전과 G20 정상회의'를 주제로 강연했다.

**<열반> 태고종 승정 혜경 스님**  
태고종 승정 혜경 스님(봉원사 회주)이 12월 14일 오전 2시 봉원사 운수각에서 법랍 73세, 세수 92세로 원적에 들었다. 스님의 영결식은 16일 오전 11시 봉원사에서 봉원사장으로 봉행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였던 혜경 스님은 1939년 봉원사에서 만성 스님을 은사로 출가 득도했다. 1945년 일파 스님을 법사로 입실건당한 스님은 1946년 불교전문강원수료, 1975년 국목담 선사로부터 비구계를 수계했다. 경기교구 총무원 총무국장, 제8·9대 영산재보존회 회장, 봉원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조동섭 기자

# “신행과 포교 둘 아니다”

## 부산·경남 지역 포교활동 리더 류진수 회장

지난 11월 5일 제22회 포교대상 공로상을 수상한 류진수 거사(대흥암엔티 회장, 범법 덕양)는 400만 부산·경남 불자를 결집하는데 공력을 세운 장본인이다.

류 거사는 1980년부터 현재까지 지역·계층·매체 포교활동의 리더로 부산불교방송국 설립, 부산불교신도회관 건립에 앞장섰다. 특히 그는 부산광역시 불교신도회장 등을 역임하며 부산 불교활성화에 전념했다.

류 거사는 1977년 범어사 지호 스님을 계사로 5계 수지를 받은 이후 율력 보살로서의 삶을 시작했다. 그는 범어사는 물론 해인사, 쌍계사 등 인연 닿는 대소 불사에 크게 공헌했으며 범어사 신도회장을 6년간 역임하며 신도회 활성화 및 조직화에 기여했다.

류 거사는 부산광역시불교신도회장을 3차례에 걸쳐 9년 동안 맡는 동안 부산의 정계·관계·인연계 등 지역 사회 리더들과 지역불교 지도자들을 결집해 신년에 대덕 스님들에게 하례를 올리는 공시행사를 만들었다. 이 행사는 지금까지도 미풍으로 지속되고 있어 부산불교의 사회적 위상을 강화시키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류진수 거사는 2007년 3000㎡(900여 평) 규모의 부산광역시 불교신도회관 건립을 주도했으며 도심포교 활성화를 위한 정기법회, 특별법회, 지



도사수련회, 세미나, 각종 문화행사 등을 개최해 포교에 진력하는 재가불자들 간의 결속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신도교육의 중요성을 알았던 류 거사는 신도전문교육기관인 로터스 불교대학, 로터스 수행학교, 로터스 청년 불교대학, 부산불교전문강원 등 불교교육으로 대중화를 위해 헌신했다.

또한 류진수 거사는 1994년부터 부산경남인도명예총영사로 재직하면서 인도와 문화 및 경제교류를 적극적으로 펼쳐 불교문화 발전은 물론 양국의 경제 발전에도 기여해 불자의 자긍심을 갖는 계기를 마련했다. 현재 그는 2010년부터는 미얀마와 문화교류를 시행하고 있다.

류 거사는 계층포교에도 큰 활약을

보였다. 그는 부산광역시 불교신도회에서의 활동을 통해 개인택시불자회를 비롯한 직장·직능 불교단체를 설립·활성화하는데 기여했으며 포교상 시상상을 통해 포교활성화에도 기여했다.

청소년 포교의 중요성을 알았던 류 거사는 부산불교 중학생연합회, 부산불교고등학교학생연합회에 재정을 지원하고 부산불교신도회장대 체육대회를 개최해 포교의 활력소가 되도록 지원을 마다하지 않았다.

류진수 거사는 거액의 사비를 보시고 반연 있는 기업가들을 모집해 1995년도에 부산불교방송국을 설립 및 개국시켰다. 그의 업적은 부산경남 400만 불자들의 숙원을 해소 하고 부산시민과 경남도민들이 불음을 들을 수 있는 포교 공덕을 쌓는 계기를 마련했다.

유마거사의 “중생과 함께 고뇌하며 법(法)을 추구한다”는 가르침을 늘 염두에 두고 있다는 류 거사는 중생 속에서 자비와 회사, 봉사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불자가 되기를 늘 발원하는 실천가다.

그는 “개인적 신행보다는 함께하는 신행생활이 요구되는 시대라 생각한 다. 신행과 포교는 따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늘 함께 해나가야 할 중요한 불자의 사명”이라고 말했다.

이어나 기자

# “수행이 공산당 압제서 견디게 해”

## 달라이라마, 다람살라서 러시아 불자에 법문

“지난 역사에서 공산당 지배로부터의 문화 말살 억압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보리심 수행의 원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러시아 불자를 위한 달



라이 라마(덴진가초) 법회가 11월 30일~12월 2일 인도 다람살라 즐라강(Tsuglakhang)에서 열렸다.

3일간 이어진 이번 법회에는 몽골, 부리아티아(Buryatia), 칼막(Kalmikia), 투아(Tuva) 등지의 러시아 불자와 외국인들을 포함한 티베트인 10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칼막 공화국의 전 총리와 러시아 의회 의원들 그리고 재무 장관과 카자흐스탄의 다른 고위들이 내뿜었다.

법회는 계쇄 특매 상보(Gyalsey Thokme Sangpo)의 <37 보리도 수행차제(37 Practices of A Bodhisattva)>를 주제로 했다. 구야삼마자(Guhyasamaja) 관정법회로 이어졌다. 11월 30일 법회는 인터넷으로 생중계 됐고, 영어와 중국어로 동시 통역돼 FM라디오로 방송됐다.

법회 첫날 이른 아침 6시부터 기도는 시작했다. 대중 법회 중간 10시 경 진행된 티타임에는 티베트 빵과 버터 차 공양이 진행됐다. 달라이라마는

1979년 모스크바에 처음 방문 했을 당시에 회상하며, “당시 머물던 호텔은 정부 기관 소속이었는데 8시 이전에는 아침을 주지 않아 배가 고팠던 기억이 나는군요”라며 대중들과 웃음을 나누기도 했다.

달라이라마는 <37 보리도 수행차제> 설법을 시작하면서, “밀교 수행의 시작은 생기 차제이다. 그에 앞서 필수적으로 공부해야 하는 수학의 과정이 있다. 구야삼마자의 생기원만차제 수행에 들어가기 전에 현교와 밀교 수행법에 대해 논해야 한다. 생기차제 관정을 시작으로 나머지 세 과정은 원만차제 수행이다. 이번 법문은 붓다의 사성제를 바로 알고 <37 보리도 수행차제>로서 구야삼마자로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다. 생기 차제로서 수행이 확고해 졌을 때 원만 차제 수행에 바로 진입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연숙 객원기자

**김종빈 前 검찰총장**  
봉은사 신도회장 선출

**혜승 스님, 자랑스런 동국인상**  
2010 동국인의 밤 열려

**대원불교조계종 창종**  
초대 종정 청봉 스님 추대

봉은사 제17대 신도회 회장에 김종빈 前 검찰총장이 선출됐다. 봉은사(주지 진화)는 12월 15일 신도회장·감사 인선위원회를 개최하고 김종빈 前 검찰총장을 신도회 회장으로 선출했다. 감사에는 한승희, 이연희씨가 사무총장에는 현신도회 부회장 이경자 씨가 선출됐다. 김 前 총장은 현재 범부법인 화우고문변호사 및 조계종 화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동국대 총동창회(회장 이연택)는 12월 1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2010 동국인의 밤' 행사를 열고 조계종 포교원장 혜승 스님을 비롯해 민병덕 국민은행장, 구자선 한국경제인불자연합회장, 안재란 영석학원 설립자 등에게 '자랑스런 동국인상'을 수여했다. 이날 '2010 동국인의 밤'에는 동국대 재단 이사장 정연 스님, 오영교 총장과 김희욱 총장 내정자, 송석구 前 총장 등 동국대 동문 1000여 명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대원불교조계종 창종식 후 초대 종정 청봉 스님과 사무대중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기”라며 “모두의 불교, 자연과 더불어 하는 불교, 무진연기 세계와 함께하는 불교, 개방불교, 다원불교, 실용불교, 마음불교 운동을 통해 대대비사상으로 과감히 매진하자”고 법문했다. 대원불교조계종 승정원장 원정 스

님은 “초대 종정에 추대된 청봉 스님은 용맹정진하는 수행가풍으로 후학 양성에 앞장서 왔다. 또, 한일 종교문화교류를 통해 국경을 초월한 불교문화 포교 활동에도 진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은 경남남부지사장

# (사)세계선불교문화교류연맹 총재 영공 도성 대선사 건당식 (비구·비구니)

이 땅에 부처님의 법이 파종 된지 2000여년 보우 국사님의 육조선맥 뿌리내려 어언 1400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년에 와서 함께하기 보다는 기득을 지키고 배타하여 집단과 개인의 이익을 먼저하는 다수인에 의해 일불 제자임에도 하나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불교가 하나 되고 세계인이 함께하는 시작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에 뜻을 함께하는 불제자들이 모여 선불교 역사를 재조명 할 수 있는 시작을 2010년 9월 27일 부산 KBS홀에서 세속 96세이시고 대한선불교의 산 증인이며 세계선불교 지도자이신 영공 도성 큰스님을 모시고 사단법인 세계선불교문화교류연맹을 출범하였습니다.

본 연맹 1차 목표인 불교를 국교로 하는 12-30개국과 함께 상호교류를 통해 선불교 발전을 도모하고 연로를 함께하며 각국 선불교 대표 큰스님의 법을 공유하여 세계인이 함께하는 찬란한 불국정토를 이룩하는 중심에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덕망 높으신 스님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 - 세계선불교 지도자 찾아 범맥기행 -

- 영공 도성 큰스님 제1회(傳法建幢) 건당식**
  - 중 사 : 경주 큰스님, 인왕 큰스님, 무진본 큰스님, 범양 동산 큰스님, 불심 도문 큰스님(조계종 원로의원), 무진장 큰스님(조계종 전포교원장) 외 본 연맹 장로단.
  - 일 시 : 2010년 12월 28일 14:00시
  - 장 소 : 부산 연제구 연산 8동 383-34번지 황정사 큰스님의 전법을 받으시고 성불 도성 하시기 바랍니다.
- 중국 광둥성 육조 혜능 대선사 (2011년 3월 20일 예정)**
- 태국 담마까이(법신사) 닷딤지도 대선사 (2011년 4월 21일 예정)**
- 캄보디아 왕사 땃퐁 대선사 (2011년 6월 예정)**
- 미얀마, 스리랑카, 대만 및 달라이라마, 기타 국 계획 중.**
  - \*상기 일정 (일부 및 전체) 동참하실 대한불교 각 종단 지도자 스님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전법건당 법첩, 기념책자, 가사(법계에 따라 17쪽 - 25쪽), 기타 준비 관계로 행사 1주일전 마감합니다. (사진 3장, 본 연맹 신청서 1부 비용 50만원)

## 사 단 법 인 세 계 선 불 교 문 화 교 류 연 맹

영공 도성 근본선불교 법맥잇기 추진 위원장 황정 합장 | 대구시 수성구 범어1동 730번지 사무총장 김대식  
전화 010-3501-3005, 053-767-8551 팩스 053-765-4814 / E-mail : koreakds@gmail.com / 입금계좌 농협 176277-51-004739